

# 색깔있는 축제 도심이 들썩... 토요일은 광주가 좋다!



신나는 금남로 공연 '프린지페스티벌'  
장바구니 들고 가는 미술관 '대인야시장'  
공동 스탬프투어·양림동 근대문화 산책  
동명동 카페거리 '핫플'·홀로그램 공연도

주말 광주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 낮이 밝고 밤은 더욱 매력적인 도시, 축제가 역동적이고 마을과 시장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어 사람을 유혹하는 곳, 특별히 먹거리가 풍부한 곳. 토요일이라 더욱 좋은 곳, 광주다. 2017년 봄, 토요일 광주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곳으로 다가온다. 지난 시즌 이후 프로그램 혁신과 보완을 거친 광주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들이 4월 일제히 출발선을 떠나며 '관광 광주'의 선봉에 나섰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금남로~양림동~동명동~대인동 일대는 광주 문화·예술·관광의 핵으로 부상했다. 토요일 이곳에는 축제와 공연, 장터와 마을이 있고, 그 안에는 문화와 예술, 역사가 오롯이 녹아있다. 낭만과 가슴이 설레는 그곳, 광주에서 잊지 못할 토요일의 추억을 만들어 보자.



지난해 처음 시작돼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프린지페스티벌 공연의 한 장면. /최현배기자 choi@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는 광주시 동구 대인예술야시장. /김진수기자 jeans@

###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대표 콘텐츠는 단연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다. 당초 지난 1일 개막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인양에 따른 국민적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연기됐다가 오는 22일 마침내 개막한다. 5·18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광주의 대표 거리예술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했다. 전일빌딩 앞 개막 무대에서는 광주정신을 기리는 창작공연 '임을 위한 몸짓' '황홀한 변신'이 개막식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임을 위한 몸짓'은 1980년대 광주 5월의 역사성을 현대적으로 각색, 라틴 댄스를 활용해 예술적으로 표현한 공연이고 '황홀한 변신'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주제를 예술로 표현하는 이미지 퍼포먼스다. 5·18민주광장 분수대 주변의 '프리동씨어터'에서는 일상의 웃음을 자아내는 공연 '클라운 진'의 '별론 매직코믹쇼'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서커스 코미디' 공연이 열리고 이어 시민과 호흡하며 진행되는 라이브퍼포먼스도 진행된다. 5·18기록관 앞에서는 다양한 무대가 마련되며 무등빌딩 앞 등에서는 무예가들의 화려한 팀배틀 무대인 '마살아트 트릭킹', 한국무용수, 댄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 '동해물과 백두산이', 설치과학을 융합한 국내 유일의 거리극 '무중력 무사' 등 스토리형 난버블 공연 등 다양한 장르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 ■ 어여쁘다 궁동

금남로 바로 인근의 궁동에서도 예술의 거리 축제가 열린다. 이른바 '어여쁘다 궁동'이다.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예술의 거리 축제는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여쁘다 궁동'은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열린다. 40여 가지의 무료 예술체험과 숨겨진 명소 찾는 스탬프투어, 예술품 아트경매, 미술 활동을 통한 심리치료, 각종 야외 공연 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문 도슨트가 동행하며 갤러리와 고미술상을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갤러리산책', 예술가들의 삶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술가 소재 영화를 상영하는 '예술영화극장' 등을 새로이 선보인다.

### ■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과 100년이 넘는 가옥이 즐비한 숲을 이루는 양림동은 역사와 건축, 문화예술 박물관이다. 시간이 멈춰 더욱 아련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민속길을 따라 내려오면 최승호 가옥과 이장우 가옥 등 전통가옥들이 즐비하다. 이장우 가옥은 1899년 정병호가 지은 상류 가옥인데 집 정면에 펼쳐진 무등산 봉우리의 풍광이 한 폭의 그림이다. 최승호 가옥은 독립운동가 최상현이 1920년에 지은 한옥으로 집 뒤쪽 양림산

### ■ 동명동 카페거리

바위틈에 나는 물로 정원을 가꾼 것이 특징이다. 광주 신문화의 발상지인 오웬기념각은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당시의 정서에 따라 남녀 출입구가 따로 만들어진 점이 이채롭다. 김현승 시인의 호 '다행'에서 이름을 딴 무인카페 다행다방이 양림동의 한가운데 있다. 좁은 골목 초입에 자리한 작은 카페, 누구나 들어가 시인과 양림동의 옛 모습을 만나고 직접 찻물을 끓여 차를 마실 수 있다. 양림동 주민센터 뒤에 평균포의 이정표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면 '평균포 마을'이 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뒹뒹뒹 걷는 모습이 평균포 같다고 해 이름 지어진 마을이다.

### ■ 대인예술야시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동구 동명동. 골목마다 트랜디한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카페거리'가 됐다. 동명동은 18970~1980년까지 광주의 부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으나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쇠락한 공간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동명동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카페와 맛집이 늘면서 젊은이의 거리로 탈바꿈했다. 3~4년 전만 해도 한두 곳에 불과하던 카페와 맛집들이 지금은 80곳을 넘었다. 어느새 동명동 카페의 거리는 젊은 취향과 트렌드를 읽는 감각, 옛집을 개조한 독특한 공간,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문화의 장소로 재탄생했다.

### ■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지난 3월 개관한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의 멋진 홀로그램극장에서 K-POP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광주의 '꿀잼'이다.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은 광주가 지난 2014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면서 빛고을 시민문화관 일대에 구축했다.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 놀이터, 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미디어 338, 디지털 갤러리, 홀로그램 파사드 등 총 6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외관에서도 홀로그램을 볼 수 있다. '홀로그램 파사드'로 옥상 미디어아트 영상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17. 5. 3.(수) - 5. 7.(일)  
광한루원·요천·시내일원



제87회

# 춘향제가 세기의 사랑 공연예술축제

로 태어납니다.

완월정 세기의 사랑 예술공연, 달빛콘서트 | 광한루각 전통소리청 | 춘향사당 실험창작극장 | 거리춤판 걸스락 페스티벌, 이판사판춤



춘향! 사랑으로 너를 그리다

주최·주관, 춘향제추진위원회 후원, 

